

이낙연·주승용 '장흥大戦' 공론조사가 당락 좌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 양강 대결

이석형 "당비대납 의혹 당 조치 미흡땐 중대결단"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리기로 최종 확정되면서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경선 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이낙연·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합평군수 3명으로,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석형 전 군수가 이 의원과 주 의원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중앙당의 조치 결과에 따라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방법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50%와 배심원 선거인단

대상의 공론조사 50%가 반영된다.

여론조사는 한국조사협회에 등재된 조사 기관 2개를 선정해 임의로 유선전화와 휴대 전화로 1000명씩 면접을 하게 되며,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중앙당의 전화조사에 응한 해당 선거구 유권자 1000명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은 장흥실내체육관에 모여 후보 3명의 토론회를 본 뒤 투표를 한다.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폐널의 공통질문과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선거인단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각 후보 측 분석에 따르면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양강을

형성하고 있고 이석형 전 합평군수가 추격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당 안팎에서는 공론조사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론조사 특성상 현장 분위기가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승용(전남 동부권), 이낙연·이석형(전남 서부권) 후보의 출신지가 전남 동부와 서부로 구분됨에 따라 공론조사 선거인단이 한데 모일 장흥체육관의 접근성도 경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전남 모든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순에서 5월 7일 경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해왔지만, 후보마다 유불리만 따지면 당에도 부담이 되고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

경선날짜와 장소를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선거인단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일은 주말로, 장소는 세 후보간 거리 차이가 없는 장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터져나온 이 의원과 주 의원의 '당비 대납' 의혹도 경선 당일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석형 예비후보는 29일 "당비 대납 등 불법·탈법을 저지른 두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당의 적절 조치 내용에 따라 중대 결단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부정을 자행한 두 후보와 경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고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어촌 특별전형 '6년 거주'로 강화

2016 대입 전형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다. 또 대체로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1/2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한국의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대입준비를 할 수 있게 대입전형 간소화, 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 고사 지양 등 전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전형 방법 수가 수시 모집은 4개, 정시 모집은 2개로 제한된다.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백분위는 쓸 수 없고 등급을 사용할 때 정시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연합뉴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기존의 '고교 3년 농어촌 지역 거주'에서 '중·고교 6년 거주'로 강화된 것이다. 또 예체능 실기고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교협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전공별로 여러 개의 대학이 연합해 실기고사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1/2 이상을 타 대학교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면접반영 비율을 최소화하고 학생부 활용과 종목별 기초실기 실시 등은 장려했다.

이와관련, 입시업체들은 2016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특별전형 자격이 강화되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줄어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의해, 차대, 한대의 지역내특별전형이 더해지면서 전략적으로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일 때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도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예년과 비교하면 주요대가 수시 선발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모의체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전투표 모의체험'이 29일 오후 광주 북구 동림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김수진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정광학원 교사채용 비리 논란 경찰 수사 비화

학교법인 '정광학원' 교사 채용 비리 논란이 경찰 수사로 번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정광학원 교사 채용 진정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 이사에게 고교 교장과 이사장 등에 대해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위원 6명 중 정광고 교장과 내부위원 2명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외부위원 3명의 경우 사립 교원은 해당 사학재단에, 공립 교사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청탁·시험문제 사전 유출·금품수수 의

혹 등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장과 정광상리계 비상대책위 등 진정인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관련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각자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앞으로 교원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정치 전남도당 파행 장기화 조짐

광역·기초의원 등록 서류 이윤석 후원 사무실서 접수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옛 민주당-새정치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 박소정 공동위원장은 선입 20일이 되도록 전남도당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공보 서류를 도당 사무실이 아닌 민주당 측인 이윤석 공동위원장의 후원 사무실에서 접수받아 새정치연합 계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공보 마감일인 29일 새정치연합 계열 일부 후보들은 "지난 28일 도당 사무실을 아예 비워둔 채 공보 서류를 이윤석 의원의 후원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25일 전남도당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보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서류를 접수했다.

도당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지난주 전남도당의 대부분 직원이 진도로 내려가 무안군 삼향읍 도당 사무실이 텅 빈수밖에 없어 인근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서 대신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선거 후보등록(5월 15일~16일)이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남도당이 사사건건 계과 간 갈등을 빚고 있어 "민주당 측이 시간 끌기를 통해 '새정치연합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에 첫 국가 배상 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원고 승소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9명에 각 3천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 대해 각 4천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70년대까지 유지하면서 정

관절제와 임신중절에 내세운 조건들이 원고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한다"며 "살려 원고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과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센인들은 소록도병원에서 일시적 치료라 아니라 인생의 상당 기간을 지내야 하는 입장이었다"며 "원고들이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면적인 출산금지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반인륜적 반인권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예우리 맞춤형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유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노가리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28~30cm의 엄선된 수산물로 전량 러시아산의 명태를 강원도 고성 의 덕장에서 건조하고 가공. 포장한 노가리를 전 국민에게 저렴하게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점이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술안주로는 최상품이라 자부하는 저희 제품을 적극 권장합니다. *생태 동태 명태 코다리...곧 출시예정

이렇게 큰 가리비를 이 가격에!!!
국내산 가리비보다 크기와 가격에서 압도하는 최상품의 가리비를 착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100%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산물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밖에 대구, 한치, 풍쟁이, 낙지... 있습니다. (주)해감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 할 것입니다.

배달도 되나요?
됩니다. 전국 어디라도 배달합니다. 통신판매, 택배 모두 됩니다. 북한은 **안** 돼요!!!
코메디언 한무가 한일 배워 들고 극찬한 **가리비**와 **노가리**를 뜯으며 한무가 풀던 **노가리(이야기)**를 보세요.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HG 농업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